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경영경제계열 문제지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인적사항 표기란에는 반드시 '수정이 불가한' 흑색 필기구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연필, 볼펜, 샤프 등)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문제에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보안봉투에 보관한 전자기기라도 시험 중 진동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 불가.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경영경제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말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풋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풋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개 짖는 소리 같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 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 있는 것두 오늘 밤뿐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주 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누는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하는 것이다.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짚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었힌 주 대위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나) [앞부분 줄거리]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마침내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 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댄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

어서 친구는 앉은자리에서 에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벌판의 밭머리에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가매장(假埋葬): 임시 매장. 시체를 임시로 묻음.

*행려병사자: 떠돌아다니다가 타향에서 병들어 죽은 사람.

*선영(先塋): 조상의 무덤. 또는 그 근처의 땅.

(다) 여느 날과 다른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날도 여지없이 번개탄 아저씨의 있어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난 중이었다. 그때, 그 소리가, 하늘이라도 찢을 듯이 쿵 하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총소리는 그렇게, 가을날의 일요일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날 일단의 사냥꾼들이 동네를 에워쌌다. 총소리는 밤낮의 구별이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무차별적이었다. 정희가 공포스러워하는 건 단순한 총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사냥꾼들을 피해 쫓기는 짐승들의 발소리가 바로 지척에서 들렸다. 마을 이장에게 알아본 바로는 지금이 바로 수렵 금지 해제 기간이라는 거였다. 이제 이런 해제 기간이 반복된다면 시골에서도 못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적이 가슴속에서 움터 올랐다.

그리고 그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뒤, 그날도 시어머니는 세상일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명석 위에 도마를 내어놓고 애호박을 나박나박 썰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완벽한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를 둘러싼 세상은 지금 한판 살육제를 펼치고 있는 거였다. 그날도 총을 든 남자들이 마을 안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타고 온 자동차가 하필 정희네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냥 시어머니처럼 세상일 내 알 바 아니라고, 그저 내 하던 일에만 신경 쓰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적어도 나는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불행이나 한계인지도 모른다. 총을 든 사내들은 '사냥꾼'들이었다. 사냥꾼이라면 언젠가 아이들에게 읽어 주던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사냥꾼만 있는 줄

알았다. 살려 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 주었어요. 여보시오,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저쪽으로 갔어요. 고맙다며 사슴이 갔다는 저쪽을 향해 달음질치는 사냥꾼. 그래서 정희가 여보시오, 차를 빼시오, 하면 그 사냥꾼들도 알았소, 하고 순순히 차를 빼 줄 줄 알았던 것일까.

“이봐요, 차를 여기다 대 놓으면 어떡해요.”

정희가 소리쳤을 때 사내 중 하나가 흘깃 돌아보고는 가던 길을 그대로 올라갔다.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내 집 앞에 차를 대 놓지 말라고 하는 게 왈왈거리는 소리로 들려요?”

“금방 갈 거야, 그리고 거기가 당신 땅이야?”

“이봐요,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에요, 반말이?”

무슨 일인가 하고 시어머니가 내다보다가 정희 옷자락을 낚아채서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라) [앞부분 줄거리] 어린 승려인 도념은 파계한 비구니인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그러던 중에 죽은 자식의 불공을 드리러 찾아오는 서울 안 대갓집 미망인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미망인이 그를 수양아들로 삼기로 하자 도념은 기뻐하며 서울 생활을 기대한다. 그런데 도념이 어머니에게 줄 털목도리를 만들기 위해 살생을 금하라는 계율을 어기고 잡은 토끼들의 가죽이 불상 뒤에서 발견된다. 이를 본 주지는 도념의 하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도념 (홀연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구 싶어요.

주지 무얼 잘했다구 또 그런 소리를 하구 있니?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겐 에미라기보다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계를 한 네 에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헤일 염주면 두 번 헤어야 한다.

도념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두 인자하시다구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지 그건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네 아비의 죄가 네 어미에게두 옮겨서 그러니라. 네 아비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두 산 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시게 한 대악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루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구,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다 깨끗이 씻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마.

도념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쏘면 골치가 어쩔어쩔해요.

주지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보라. 오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구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두 한 겹 물만 퍼내구 보면 시꺼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십 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루 올라갈라구 헛바닥을 났름거리며 비 오기만 기다리구 있단다. 동네두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로. 겉으루 보면 모두 즐겁구 평화한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애*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로새겨 있는 글자 그대로 오락*의 사바*니라.

도념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럭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스님, 바른 대루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주지 듣자 듣자 하니까 나중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도념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구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구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지 (열화같이 노하며) 수다스러. 한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미망인을 보고) 아씨께서 진정으로 애를 사랑하신다면, 애 매디매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뒤 주십시오. 자기 한 몸의 죄만 아니라 제 아비 제 어미 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 애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애(塵埃): 세상의 속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탁(五濁): 세상의 다섯 가지 더러움.

*사바(娑婆):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 석가모니불이 교화하는 세계.

(마) 1950년대,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나온 지 1세기가 지났지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의 처지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물론 경제적 형편은 전반적으로 조금 나아졌으나 사회적 차별은 여전했다. 특히 남부에서 흑인은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백인들에게서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백인들과는 다른 학교에 다녀야 했고, 공공장소에서도 백인들과 분리되어 따로 서 있어야 했다. 버스를 탈 때는 뒷문을 이용해야 했고, 공원의 수도꼭지는 백인용과 흑인용이 구별되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흑인들 사이에도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고 스스로 나서고 수백 년 된 흑백 차별의 사회적 관습에 도전해 보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로자 파크스라는 한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1960년대에 절정을 이룬 흑인 민권 운동의 선구와도 같았다. 로자 파크스가 살던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는 오랫동안 버스 좌석이 인종별로 나뉘어 있었다. 1955년 12월 1일, 한 버스에 올라탄 로자 파크스는 백인만 앉을 수 있는 맨 앞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운전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옮기라고 말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로자 파크스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와 흑인 민권 운동가들은 로자 파크스 사건을 법의 심판대로 끌고 갔다. 그리고 1년 후 연방 대법원은 버스 내에서의 흑백 구별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흑인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지금까지 난공 불락으로 여겨졌던 인종 차별의 벽이 자신들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노력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로자 파크스라는 한 여인에게서 비롯한 것이니, 개인의 작은 용기가 때로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뒤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바)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삼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삼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삼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눈을 쓸어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쏘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경기(驚氣)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다.

(사) 서른 살이 넘어도 아직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공연히 속도만 내는 젊은이들을 가끔 본다. 그럴 경우, 어떤 젊음의 속도를 낸들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못 들어선 산길에서는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걸어도 산정에 다다를 수 없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 방향을 놓치고도 미처 그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돛단배의 방향은 바람의 방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려 있다. 인생의 방향도 타의에 의해 설정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설정된다. 물론 그 방향은 선하고 성실한 방향이어야 한다. 선한 방향이 아니면 누구의 인생이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인생이라는 여행의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목표 지향적 여행보다 경로 지향적 여행이 더 바람직하다. 목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자칫 방향보다 속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천박한 속성인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속도를 내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지면 인생 자체가 낙오된 듯 여긴다. 그러나 경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인생의 속도는 줄어든다. 어디를 거쳐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며칠 밤을 묵고 갈까 하는 여유를 지니게 된다. 그런 여유 속에서 인생은 목표보다는 경로가, 속도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길 또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고 넓어짐으로써 자족하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된다.

(아) 고전 소설을 읽다 보면 조선 시대의 사회 체제 아래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중세 체제를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인물을 만날 수 있다. 이를 개인 간의 관계로 보면, 지체가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이 권위 있고 지체가 높은 상대에게 지나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나타난다. 고전 소설에 그려진 당돌한 인물 형상은 소설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에서 마음껏 노닐고 싶은 욕망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에 설정된 사건과 그것을 겪는 인물은 현실의 체제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면에서 소설에 그려진 세상은 그 시대와 체제의 반영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려는 당대인의 노력이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이에 소설의 주인공은 본질적으로 당돌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순종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으로는 소설의 흥미 요소 중 하나인 사건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체제에 도전하고 체제를 넘어서는 자세를 요구받는다. 그래야 인물의 성격도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그가 겪는 사건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개될 것이다. 소설 속에서 당돌한 인물을 만나면 우리는 그로부터 무엇인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의식과 자세를 보게 된다.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인가 새롭고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당돌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겠다.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현재의 질곡을 타개하고자 하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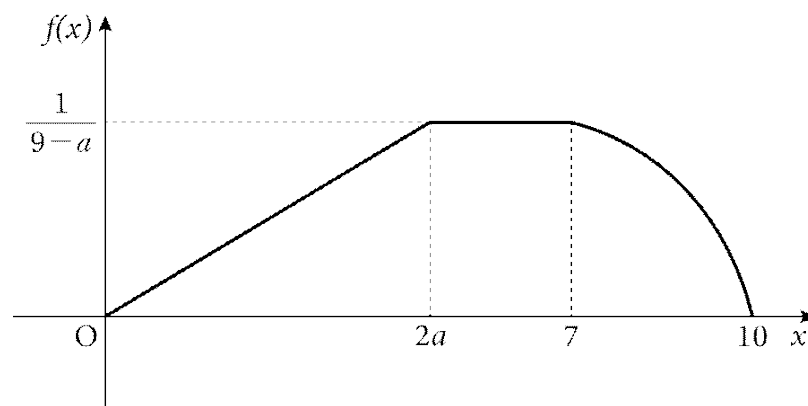
*질곡: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강요를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강요하는지 찾고, 강요하는 '이유'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여인'이 강요를 거부하는 '이유'와 제시문 (라)의 '도념'이 강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남자'가 강요에 대처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남자'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풀이 과정 포함)

- 두 국가 M과 N에서 각각 48명과 42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스스로 진로를 결정한 정도가 진로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한 정도를 '진로자기결정성'이라 할 때, 진로자기결정성을 1(낮음), 2(보통), 3(높음)의 값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가 M의 학생 48명 중 진로자기결정성이 1이라고 답한 학생이 8명, 2라고 답한 학생이 28명, 3이라고 답한 학생이 12명이다.
 - 국가 N의 학생 42명 중 진로자기결정성이 1이라고 답한 학생이 12명, 2라고 답한 학생이 21명, 3이라고 답한 학생이 9명이다.
- 한편, 연속확률변수인 진로 만족도 X 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leq X \leq 10$ 이고, 진로자기결정성 값이 a 일 때 X 의 확률밀도함수 $f(x)$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 어떤 학생의 진로 만족도가 7 이상이면, '매우 만족'으로 간주한다.

[문제 3] 선발된 9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하여 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더니 '매우 만족'이었다고 할 때, 이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